

제2회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 이모저모

21일 개장식 행사

○11월21일 오전 10시 30분 개장식 행사와 함께 테이프 컷팅을 시작으로 제2회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는 막을 올렸다.

지난해 제1회 전시회가 생소했던 관람객의 다량에 초점이 모아진 행사였다. 이번 전시회는 내년 규격화시행에 앞서 국산생약재의 우수성을 보여 주려는 행사라 할 수 있다.

이중농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산생약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이번 전시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입국산비교 전시회

○이번 전시회기간 동안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1백50종의 약재가 6만9천여점 전시됐다. 특히 황기, 당귀, 인삼, 오미자, 영지 등 54종의 한약재가 수입산과 국산으로 나란히 비교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한의사 무료진료

○이번 전시회기간 동안 한의사 무료진료는 2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대병원 연구원실(33세)에서 열렸다.

방향제 건강배개

○본부 전시관에는 한약재의 이용에 관한 건강배개, 발향제가 전시돼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약용차 시음회

○약용차 시음회는 2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대병원 연구원실에서 열렸다.

상황버섯 전시

○상황버섯 전시회는 2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대병원 연구원실에서 열렸다.

사설 '대성황'이 주는 의미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용산역 광장은 한약재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고르지 못한 기상조건 속에서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던 '대성황'이라고 할 수 있다.

자주 열리는 농수산물 대축제에 비한다면 국산한약재전시회는 좀처럼 흔치 않은 행사이고 그래서 더욱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이 아닐까. 거기에는 우수생약재 출품에 최선을 다한 생산농민들과 생약협회 산하 회원들의 노고가 큰 몫을 했음은 물론이다.

대성황이 주는 의미는 다음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반 소비자들이 국산 한약재에 대해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수입개방화와 함께 수입약재가 무더기로 쏟아져 들어 오면서 수입약재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제기되자 수입산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던 소비자들이 국산한약재를 믿고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시장을 찾음으로써 국산약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입증했다.

둘째는 수입개방화의 파고 속에서 국내 생약농업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다. 국산한약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함께 하는 한, 생약재의 고품질화에만 최선을 다해 나간다면 치열한 국제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당당히 살아남을 수 있으리란 생약농업의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바꿔말하면 수입개방화시대에 우리것을 지켜내지 못할때는 세계무대에서 낙오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셋째,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는 비단 국산한약재의 우수성 홍보만이 아닌 전체 한방계의 활성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우리생약살리기 일환으로 지난해 처음 시도했던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는 국산한약재의 우수성 홍보와 판로 확보는 물론 한약재의 저변확대에 기여함으로써 침체돼 있는 한방계 전체의 활성화와 발전까지를 도모할 수 있을것이란 낙관적인 기대도 가져볼직 하다.

출품 한약재를 6백7단위로 규격포장, 생산지·생산자 표시를 함으로써 국산한약재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준 것도 내년 규격화시행을 앞두고 이번 전시행사가 갖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할 만하다.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구미를 당긴것은 한의사에게 무료 진료를 받고 처방대로 필요한 한약재를 시중보다 비교적 저렴한 값에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을 것이다. 그런점에서 건강상담실운영은 이번 제2회 전시회를 더욱 입체적으로 부각시킨 요인이라 하겠다.

미흡했던 부분도 많이 있다. 아쉬운점이 사실은 더 많지만 중요한건 이번 전시회의 대성황 속에서 국내 생약 농업의 가능성을 보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기대도 해본다.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가 단순한 일과성 행사로만 끝나지 않기를, 우리 생약살리기의 새 장을 여는 포문이 되기를.

실(는) 직접 비교해보니 우리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겠다며 '이제 시중에 서구기자황기들을 살 때도 수입과 국산울어는 정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귀띔

한의사 무료진료는 2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대병원 연구원실(33세)에서 열렸다.

○본부 전시관에는 한약재의 이용에 관한 건강배개, 발향제가 전시돼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약용차 시음회는 2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대병원 연구원실에서 열렸다.

○상황버섯 전시회는 2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대병원 연구원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기간 동안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1백50종의 약재가 6만9천여점 전시됐다. 특히 황기, 당귀, 인삼, 오미자, 영지 등 54종의 한약재가 수입산과 국산으로 나란히 비교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한의사 무료진료는 2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대병원 연구원실(33세)에서 열렸다.

○본부 전시관에는 한약재의 이용에 관한 건강배개, 발향제가 전시돼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약용차 시음회는 2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대병원 연구원실에서 열렸다.

○상황버섯 전시회는 2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대병원 연구원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기간 동안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1백50종의 약재가 6만9천여점 전시됐다. 특히 황기, 당귀, 인삼, 오미자, 영지 등 54종의 한약재가 수입산과 국산으로 나란히 비교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한의사 무료진료는 2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대병원 연구원실(33세)에서 열렸다.

○본부 전시관에는 한약재의 이용에 관한 건강배개, 발향제가 전시돼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약용차 시음회는 2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대병원 연구원실에서 열렸다.

○상황버섯 전시회는 2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대병원 연구원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기간 동안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1백50종의 약재가 6만9천여점 전시됐다. 특히 황기, 당귀, 인삼, 오미자, 영지 등 54종의 한약재가 수입산과 국산으로 나란히 비교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한의사 무료진료는 2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대병원 연구원실(33세)에서 열렸다.

○본부 전시관에는 한약재의 이용에 관한 건강배개, 발향제가 전시돼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약용차 시음회는 2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대병원 연구원실에서 열렸다.

○상황버섯 전시회는 2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대병원 연구원실에서 열렸다.

○...전시회가 대성황을 이루자, 정보를 입수한 '떡자상인'들의 발빠른 움직임이 이어져 행사장 입구에는 또다른 장터가 벌어졌다. 그 중에는 약삭빠르게 수입산 사슴뿔을 싸들고 와 비교 전시관에 버젓이 진열해 놓고 자기네 사슴뿔장 홍보 팜플렛을 배포하는 등 몰염치한 암체죽도 있어 한동안 실랑이를 벌이기도.

○...행사 둘째날인 22일 오후 6시 KBS내고향장터 프로그가 전시 행사장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했는데 영하로 뚝 떨어진 날씨에 이날 따라 비바람까지 몰아쳐 스태프들은 물론이고 각 도별 전시관 특산품 소개를 맡은 회원들도 긴장. 생방송 시간을 몇분 앞두고 조명기기 세트가 비바람에 갑자기 넘어져 한바탕 곤욕을 치르기도. 약조건 속에서의 고생은 아무렇지 않은듯

전시장에서 생긴 이런일 저런일

TV에 내고향 특산품을 홍보했다는 사실만 뿌듯한 지방회원들은 연일 싱글벙글. 특히 이날 생방송을 위해

조명기기세트 비바람에 넘어져...

올라온 전북지역 풍물팀의 활약이 돋보였는데 비바람 속에서 옷 젖는줄도 모르고 쟁가리 소리는 그저 신명나기만.

○...22일 저녁 밤새 불어닥친 비바람에 애드벌룬이 터지고 충북관, 강원관, 전남관, 경북관, 충남관 등 5개 관의 비닐 지붕이 날라가는 등 한바탕 소란. 난리통 속

에서 고생한건 야간 경비를 맡았던 아르바이트 경비원 들이며, 덕분에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무사히 전시행사를 치를수 있었다.

○...충추는 울릉도 호박엿장수도 분위기 띄우는 데는 한 몫. 북·장고까지 준비 신명나게 두드려 대며 특유의 재스처로 소비

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팬이 많았는데 흥겨운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는 엿장수 가락에 맞춰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는가 하면 장고까지 뺏어 들고 한바탕 신명풀이를 하기도. 덕분에 엿장수 하루 소득도 제법 짭짤했다는 후문.

○이번 전시회기간 동안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1백50종의 약재가 6만9천여점 전시됐다. 특히 황기, 당귀, 인삼, 오미자, 영지 등 54종의 한약재가 수입산과 국산으로 나란히 비교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한의사 무료진료는 2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대병원 연구원실(33세)에서 열렸다.

○본부 전시관에는 한약재의 이용에 관한 건강배개, 발향제가 전시돼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약용차 시음회는 2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대병원 연구원실에서 열렸다.

○상황버섯 전시회는 2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대병원 연구원실에서 열렸다.

○...전시회가 대성황을 이루자, 정보를 입수한 '떡자상인'들의 발빠른 움직임이 이어져 행사장 입구에는 또다른 장터가 벌어졌다. 그 중에는 약삭빠르게 수입산 사슴뿔을 싸들고 와 비교 전시관에 버젓이 진열해 놓고 자기네 사슴뿔장 홍보 팜플렛을 배포하는 등 몰염치한 암체죽도 있어 한동안 실랑이를 벌이기도.

○...행사 둘째날인 22일 오후 6시 KBS내고향장터 프로그가 전시 행사장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했는데 영하로 뚝 떨어진 날씨에 이날 따라 비바람까지 몰아쳐 스태프들은 물론이고 각 도별 전시관 특산품 소개를 맡은 회원들도 긴장. 생방송 시간을 몇분 앞두고 조명기기 세트가 비바람에 갑자기 넘어져 한바탕 곤욕을 치르기도. 약조건 속에서의 고생은 아무렇지 않은듯

○이번 전시회기간 동안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1백50종의 약재가 6만9천여점 전시됐다. 특히 황기, 당귀, 인삼, 오미자, 영지 등 54종의 한약재가 수입산과 국산으로 나란히 비교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한의사 무료진료는 2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대병원 연구원실(33세)에서 열렸다.

○본부 전시관에는 한약재의 이용에 관한 건강배개, 발향제가 전시돼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약용차 시음회는 2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대병원 연구원실에서 열렸다.

○상황버섯 전시회는 2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대병원 연구원실에서 열렸다.

○...전시회가 대성황을 이루자, 정보를 입수한 '떡자상인'들의 발빠른 움직임이 이어져 행사장 입구에는 또다른 장터가 벌어졌다. 그 중에는 약삭빠르게 수입산 사슴뿔을 싸들고 와 비교 전시관에 버젓이 진열해 놓고 자기네 사슴뿔장 홍보 팜플렛을 배포하는 등 몰염치한 암체죽도 있어 한동안 실랑이를 벌이기도.

○...행사 둘째날인 22일 오후 6시 KBS내고향장터 프로그가 전시 행사장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했는데 영하로 뚝 떨어진 날씨에 이날 따라 비바람까지 몰아쳐 스태프들은 물론이고 각 도별 전시관 특산품 소개를 맡은 회원들도 긴장. 생방송 시간을 몇분 앞두고 조명기기 세트가 비바람에 갑자기 넘어져 한바탕 곤욕을 치르기도. 약조건 속에서의 고생은 아무렇지 않은듯